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9.01.20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세미나

2018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수행 중인 16개국의 연구팀과 한국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관련기사 p.5)

중앙아시아 한국대
(관련기사 p.2)

키르기스 한국대
(관련기사 p.3)

크질오르다 국립대
(관련기사 p.4)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p.5-6)

카자흐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p.7-8)

제 2 회 중앙아시아 고려인 음식문화 국제학술대회, 진주교대와 자매교류협정

2018년 하계 단기 전공 연수프로그램, 하태역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특강

홍범도 장군 탄생 150주년 행사, 한국 음식 체험, 한국어학과 재학생 발표회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 대학생콜로키움, 씨앗형사업 국제학술회의 외

교원간담회, 572 돌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 KF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외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중앙아시아 한국대

제 2 회 중앙아 고려인 음식문화 국제학술회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음식문화 관련 국제학술회의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8월 17일(금) 중앙아시아 한국대 유라시아미래연구원(소장 세리쿨로바 미나라)과 한국의 (사)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원장 김홍렬)이 공동 주최하고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과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가 후원한 본 국제학술회의는 비슈케크 소재 가든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민족음식문화의 계승과 변화”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베이세날리예바 총장(중앙아시아 한국대)을 비롯해, 이스마일로바 의원(키르기스스탄 국회), 한 베체슬라프 회장, 박 아루투르 부회장(이상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이 블라디미르 회장(비슈케크포럼) 등 현지 인사와 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 소속 학자 및 일반 회원 11명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고려인의 민족음식문화 전통 계승과 변화에 대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올해 대회는 특히 고려인에 대한 관심을 음식문화라는 민족 동질성 요소를 주제로 접근함으로써 고려인을 비롯한 현지 참여 인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발표한 주제는 “한국 거주 고려인 동포들의 생활과 음식문화”(김홍렬, 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장), “민족음식문화의 유용화 사례”(송영애, 전주대 교수), “고려인의 민족성 기반으로서의 떡 문화”(정 이리나, 키르기스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청년실업자 모임인 “비슈케크포럼의 역사와 활동”(이 블라드미르, 비슈케크포럼), “중앙아시아 고려인 민족음식문화의 특징”(백태현, 비슈케크 인문대) 등이다.

본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김홍렬 원장(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은 “고려인 이주 80주년을 맞아 처음 시작한 고려인의 민족음식에 대한 1차 대회 이후 이 학술대회의 지속 개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계속돼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올해 제 2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주인공인 고려인 민족음식문화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전통음식을 산업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교육대학교와 자매교류협정 체결

진주교대는 2018년 11월 13일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 한국대와 학술교류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자매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진주교대팀은 향후 진행할 “키르기스스탄의 교원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키르기스스탄의 교원 양성 및 교사 재교육 과정 현황 조사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한 핵심협력대학으로 비슈케크 소재 아라바예프대, 키르기스 한국대를 선정하여 향후 상호 연구 및 교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팀은 이경원 교수를 단장으로 이재인, 정은실 교수와 홍훈아 선생으로 구성되었다.



키르기스 한국대

2018년 하계 단기전공 연수프로그램

키르기스 한국대는 선문대 CK-1 특성화 이슬람사업단(단장 허태희)과 학술교류 및 연구를 위한 자매협정을 체결(2018년 2월 28일)한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선문대 2018년 하계 중앙아시아 3국 단기전공 연수프로그램을 주관하였다.

2018년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이슬람권 진출 중소기업·협력 파트너 인력양성사업단에 속하는 선문대 국제관계·행정학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이슬람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하기 위해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공기관 탐방, 현지 협력 대학인 키르기스 한국대에서의 단기 위탁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이슬람 연계전공 역량을 강화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문대 연수 담당 교수는 허태희 단장을 비롯하여 우준모, 허준, 하재룡 교수 등이며, 참여한 선문대 학생수는 32명이었다.

현지 연수 프로그램 기간 중에 진행된 기초 러시아어 강좌는 세리쿨로바 미나라 교수, 중앙아시아 역사 및 고려인 역사와 문화 강좌는 백태현 교수(이상 키르기스 한국대), 국가별 특강은 정병후 대사(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김형환 법인장(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김 배체슬라프 회장(우즈베키스탄 고려인비즈니스협회) 등이 참여 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카자흐스탄의 알파티,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와 이식쿨호,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에 이르는 긴 여정이었지만, 실�크로드 지역의 모스크, 박물관 등 역사문화유적지와 자연 경관을 직접 탐사하고 배우는 좋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하태역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특강

키르기스 한국대는 2018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재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마련하였다. 하태역 대사(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는 2018년 9월 20(목) 비슈케크 시내 자나트 호텔에서 베이세날리에바 총장(키르기스 한국대)을 비롯하여 교직원 및 재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류 속 한국의 전통문화”(1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시기별 발전과정”(2부)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하태역 대사는 키르기스스탄 임지로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펼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한국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크질오르다 국립대

홍범도 장군 탄생 150주년 행사

2018년 10월 24일 크질오르다에서는 홍범도 장군 탄생 150주년 및 순국 75주년 행사가 개최되었다.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학과 학생들도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여, 홍범도 장군 묘역에 헌화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한국에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회원 20여명이 크질오르다에 방문하였고, 크질오르다 고려인협회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공연도 준비하였다.



한국 음식 체험

2018년 11월 9일과 16일 크질오르다 국립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한국 음식 체험 시간을 가졌다. 현 교원들이 지난 일년 간 학생들이 가장 먹어 보고 싶어한 한국 음식 중에서 크질오르다에서 맛보기 힘든 한국 음식을 선정하여, 필요한 재료들을 한국에서 구입해 왔다. 이에 학생들은 처음으로 팔빙수와 호떡을 직접 만들고 먹어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어학과 재학생 모임 및 발표회

2018년 11월 30일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학과 재학생들 전원이 모여 다과와 함께 발표회를 가졌다. 지난 2018년 11월 23일 알마티에서 개최되었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학 20주년 학술대회 및 올림피아드에 카이라트베크 아루잔, 사르센 다나, 베크나자르 라우라 세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학술대회와 올림피아드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준비 과정을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특히 카이라트베크 아루잔은 크질오르다 국립대 최초로 한국학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의미가 남다르다. 비록 학생들이 수상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학과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수여하여 아쉬움을 달랬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남대 한국어어학 연수프로그램에 두 학생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카이라트베크 아루잔과 스켈디로바 누르사트는 후배들을 위하여 한국어 공부 방법과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최종 인터뷰 경험들을 발표하였다. 이번 모임은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학과 재학생 전원이 모인 첫 자리로, 선후배 간에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카자흐 국립대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세미나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는 2018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을 수행 중인 16개국의 연구팀과 한국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국제세미나는 1) 만남과 정보 공유를 통한 참여 대학 간 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의 장이 되게 하고, 2) 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사업수행자(대학연구팀) 간 네트워크 형성과 한국학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되게 하며, 3) 취합된 최신 한국학 정보와 자료구축을 통한 현실성 있는 해외한국학 관련 정책수립과 발전방향의 모색에 큰 기여를 하게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세미나에는 안병욱 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구난희 단장(한국학진흥사업단)을 비롯하여 15개국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팀, 카자흐국립대의 씨앗형사업팀, 대학관계자 및 한국학과 교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중핵대학사업단(단장 박 넬리)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수행과 관련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포함, 해당 소속 대학과 소속 국가 내의 한국학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세계 속의 한국학’, ‘소통의 한국학’으로 더 큰 도약과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고, 나아가 해외한국학의 지평 확대와 위상제고로 이어지게 하는 데 큰 가교 역할을 해주었다.



카자흐 국립대-선문대 대학생콜로키움

2018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동방학부에서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와 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과, 국제관계학과, 신학순결학과(지도교수 허준, 윤태연) 간에 대학생콜로키움이 진행되었다.

“21세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행사에는 카자흐 국립대 20명(토론)과 선문대 13명(발표)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발표와 토론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콜로키움에서는 1) 글로벌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한국의 다문화 사회진입, 2)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 경쟁논리에 대한 찬성과 반대, 3)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평가 - 기회적 요소와 위협적 요소의 공존, 4) 자살은 개인의 선택문제인가? 등 4개의 소주제들을 대상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학술회의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씨앗형사업팀은 2018년 12월 7일 “2018년도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해외에서의 한인 문학 연구(고려인문학 포함): 문제, 경향 및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학술회의에는 카자흐스탄, 한국,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연구자들이 참가했다.



카자흐 국립대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는 작년에 이어 2018-2019 학년 도에도 한 학기 동안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특강 사업을 진행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700 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고, 국내 거주 고려인을 포함한 타국적 한민족, 나아가 150 만 다민족 사회에 대한 대비와 이해, 인식의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재외동포재단은 외연을 확대하여 교육의 대상을 해외 한민족 사회로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는 2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강좌를 통해 고려인 수강생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주와 거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더 깊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타민족 수강생들에게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의 존재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슈토베 현장답사

2018년 10월 13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학생들은 이병조 교수의 인솔 하에 고려인들의 성지인 우슈토베에서 답사활동을 수행했다.

우슈토베는 55만 CIS 고려인들의 메카와 같은 곳으로 이곳에는 고려인들의 역사가 서려 있는 유적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 답사단원들이 방문한 곳은 제르진스키 고려인 학교와 중앙공원에 위치한 정치탄압희생자위령비, 옛 고려극장 건물, 강제이주기념비와 초기 공동묘지와 토굴 흔적이 남아있는 바스투베 언덕이다. 특히 마지막 장소는 상징성이 큰 곳으로, 기념비 주변에는 강제이주 1세대들이 다수 묻혀 있는 첫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가 없어 임시로 땅을 파고 살았다는 토굴의 흔적이 쇠줄타기로 둘러 쳐진 채 보호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타원형의 옥석과 흰 대리석 기념비들은 1999년과 2002년에 한국정부와 한-카친선협회에 의해 세워졌으며, 가운데 큰 비석과 게르 모형의 조형물은 2011년에 한국정부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에 의해 추가로 건립된 것이다. 고려인의 카자흐스탄 정주 8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답사이고, 고려인이 아닌 카자흐인 학생들이 주축이 된 답사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기타 행사

- 2018년 09월 14일 선후배 간 친선-화합모임
- 2018년 09월 25일 추석맞이 한국문화 체험 행사
- 2018년 10월 26일 포스코 장학금 수여식
- 2018년 11월 07일 세종 YWCA 와 협력각서 체결 및 한복기증식
- 2018년 12월 10일 신한은행 장학금 수여식
- 2018년 12월 24일 카자흐스탄 중기연 장학금 수여식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알마티 한국어/한국학 교원간담회

2018년 12월 4일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한 “2018 알마티 한국어 및 한국학 교원간담회”가 시내 한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은 2017년 5월 한-카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 카자흐스탄 전역의 한국어와 한국학 교원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알마티의 교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KIMEP 대, 알마티 경제대, 알마티 경영대, 도스타르학교, 고려주말학교, 카자흐스탄 한국어센터, 스테디코리아 어학원, 월드와이드에듀케이션, 강남에듀케이션 등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강의하는 교원 50명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현황을 소개하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대사관에서는 한만춘 공사, 이현주 서기관, 박정은 실무관이 참석하였다. 한만춘 공사는 현지의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한국 문화 전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강의에 임하고 있는 교원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방면의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3.1 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주요 인사들이 정착한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그 의의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데에 한국어 및 한국학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획도 준비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교원간담회는 공관과 교육현장의 소통뿐 아니라, 현장 내의 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각자의 수업에 바빠서 모일 기회가 적었던 교원들은 이 자리를 빌어 각 기관의 현황과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어와 한국학 교원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한편, 한만춘 공사 일행은 간담회에 앞서 카자흐 세계언어대와 KIMEP 대를 방문하였다.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는 사하노바 아르다크 부총장, 박 넬리 중핵사업단장, 쿠틀루코프 시르자트 한국학과장, 한 넬리 한국학센터 소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 20주년을 축하하고, 한국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대사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카자흐스탄 중기연 장학금전달식

2018년 11월 30일 알마티 시내 한식당에서 카자흐스탄 한국중소기업연합회(회장 김성태)의 장학금전달식이 있었다.

학과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적이 우수한 반면에 집안 형편이 다소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카자흐 국립대 4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4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카자흐스탄 중기연은 2016년부터 꾸준히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3회에 걸쳐 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572 돌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

2018년 10월 9일(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572 돌 한글날과 한국학센터 개원 6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학 교원 및 학생 1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박 넬리 교수(중핵대학사업단장)와 쿠틀루코프 한국학과장의 인사말과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세계언어대 한국학 20주년을 맞아 한 넬리 한국학센터 소장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 20년”의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세계언어대 한국학과는 1998년에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2018-2019학년도 현재 어문학전공, 통번역전공, 한국학전공에 400여 명이 수강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한국학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한국학센터를 개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해외중핵대학사업에 선정되어 학술지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학술대회와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 한국학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RA 장학증서 수여, TOPIK 우수자 시상이 끝난 후, 한국어예비교원 국외실습단(국립국어원 주최, 국민대 주관)이 한글날을 기념하여 태권무 공연, 한글날 퀴즈, K-POP 퀴즈, K-POP 댄스 공연 등을 진행하였다. 한국어예비교원 국외실습단은 국내 한국어예비교원의 실습 현장 다양화를 위하여 국외실습 기회를 마련하고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월과 10월에 경력교원 4명과 예비교원 25명을 파견하여 고려주말학교, 자라한글학교, 알마티과학기술협의회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으며, 세계언어대에서 대학생 교류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한국학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1월 말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한국의 5개국 13개 도시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학주간을 준비하고 있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 20주년 기념 한국학주간”에는 다양한 한국학 특강시리즈, 한국학경시대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총동문회 등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KF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2019년 1월 18일 김홍수 총영사(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국제교류재단의 대학원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카자흐 국립대 대학원생 5명(석사 3명, 박사 2명)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대학원생 5명(석사 3명, 박사 2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사업은 우수한 한국학 인재들을 카자흐스탄의 대학원 과정에 적극 유치하여,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